

# 광주 충장로에 '홍콩의 밤거리' 만든다

### 동구, 3가 이면도로 50여m에 야간 레스토랑·카페테일바 등 인근 오픈 앞둔 중국풍 '몽키 터미널' 과 연계 육성사업 추진 "특화거리 남발...세금 들여서 특정 상업시설 지원" 우려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홍콩 거리' (가칭)가 조성된다.

광주시 동구는 내년 2월까지 충장로3가 이면도로에 '홍콩 거리'를 새로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성 대상지는 충장로안길 5 인근 골목 50여m 구간으로, 현재 이 골목은 일부 점집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게가 폐업해 인적이 끊겨 있는 상황이다.

홍콩 거리에는 홍콩식 레스토랑, 주점, 싱글몰트-위스키 카페테일바, 디저트 카페 등 4개 업체를 유치한다. 거리에 야외용 식탁과 의자 등을 설치해 야외에서도 음식과 주류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동구는 한자로 된 네온사인 간판, 도로 안내판 모양의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한자 등을 그려넣어 홍콩 분위기를 연출할 방침이다.

동구는 홍콩이 젊은 세대에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으면서도 광주 곳곳에 일본풍 점포는 많으나 홍콩풍 점포는 드물다는 점에서 거리 콘셉트를 홍콩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내년 5월까지 홍콩 거리 조성지와 불과 50여m 떨어진 옛 와이즈파크 자리에 복합쇼핑공간 '몽키 터미널'이 홍콩-중국풍 콘셉트를 차용해 오픈할 예정이라는 점도 계기가 됐다.

몽키 터미널은 광산구 첨단1지구 일대에 지난 2019년 '더시너지 첨단', '포플레이 첨단', '보이저 첨단' 등 상가를 만든 회사가 충장로에 조성하고 있는 쇼핑몰이다. 동구는 몽키 터미널 인근 골목에 유사한 콘셉트의 특화 거리를 만들어 방문객이 충장로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취지다.

주요 입점 업체를 '주점'으로 선정된 것은 방문객이 야간에 오를수록 충장로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광주시 동구는 충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핵점포 육성 사업' 예산 4억원 중 일부인 2억여원을 이용해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핵점포 육성 사업은 대외적으로 인기 있는 브랜드 업체를 충장로에 유치해 친해진 충장로 상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충장로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충

장로 방면객은 결국 몽키 터미널 방면객으로 연결되기 마련이어서 쇼핑몰 사업자의 사업을 세금을 들여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거리 조성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특화 거리를 남발해 충장로 인근에 특화 거리가 넘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충장로에는 충장로2가 K-pop스타의 거리와 충장로4가 혼수의거리, 영화의거리, 도깨비골목 등이 있는데다 인근에 광산동 아시아음식문화거



내년 2월 '홍콩 거리'가 들어설 예정인 광주시 동구 충장로안길 5 인근 골목(왼쪽)과 홍콩 거리 조감도.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리, 공동 예술의거리도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특화 거리가 실효성 부족으로 '세금 낭비' 지적을 받는 마당에 새로운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동구 관계자는 "최근 젊은 세대의 충장로 방문이 부쩍 늘었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머물 곳이 없어 우르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저녁까지 즐길 수 있는 충장로를 만들어 전반적인 상권을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거리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조성 대상지가 심수년째 폐점포들만 방치돼 있던 낙후한 골목인데다, 거리 자체가 길이 100m 미만으로 짧은 만큼 거창한 특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핫 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장로를 오랫동안 머물수 있는 곳, 상시 즐길거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광주의 상권 중심지'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200억원대 불법 대출' 저축은행 관계자들 법정

### 전직 은행장·변호사 등 8명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의 200억원대의 불법대출과 관련 검찰이 전직 은행장과 직원, 브로커 및 사건 무마를 위해 형직 변호사와 법조브로커까지 총 8명을 법정에 세웠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 부장검사)는 부정 대출과 관련된 5명과 수사를 무마를 위해 금품을 챙긴 변호사와 브로커 3명 등 총 8명(4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출브로커 A(55·구속기소)씨는 2018~2021년 광주의 모 저축은행장 B(64·구속기소)씨를 통해 대출을 청탁하고 대출 성공 대가로 4차례에 걸쳐 8

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은행장인 B씨는 재직 당시 A씨의 부탁으로 총 241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해준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아 6000만원을 차명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축은행 여신승인 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거치도록 해 부실 대출이 실행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서류 조작 등 불법이 이뤄졌으며, 여신팀장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대출을 청탁한 사업가 등 3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수사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법조브로커들이 사건

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법조브로커 2명(구속·불구속 기소)은 2023~2024년 A씨와 B씨에게 형직 C(58·구속기소) 변호사를 '검찰 일을 잘 보는 변호사'로 소개했다.

C 변호사는 사건 무마를 위한 검찰 관계자와의 교제 또는 뇌물 교부 목적으로 7억원을 받아 브로커와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소한 피고인 8명 외에도 감도비디오로 도주한 공범 법조브로커를 지명수배했다.

C 변호사가 받은 금품을 검찰 관계자 로비에 실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광주지검 검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회생법원 2026년 3월 문 연다

광주에 도산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특수법원인 광주회생법원(11월 28일자 광주일보 1면)이 2026년 3월 문을 열게 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서울·수원·부산 등 3곳에 설치된 회생법원이 광주에도 설치된다. 광주회생법원은 광주고법 관할(광주·전남·전북·제주)의 도산사

건을 처리하게 된다.

광주회생법원을 위한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지 않고 기존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법원 종합청사에 들어서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광주회생법원이 생기면 전문성있는 재판부에 의해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천 고등법원과 대전·대구 회생법원 설치안도 통과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여대 '외국인 남학생 정원 확대 갈등' 타결

### 학생들 시위 종료

외국인 남학생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갈등(11월 13일자 광주일보 7면)을 빚어 온 광주여대와 학생들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며 시위가 종료됐다.

28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광주여대와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는 지난 26일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남학생 입학 전 안전 대책

을 최대한 실현한 뒤 모집해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했다.

학교 측은 "현재 여학생 총 14명으로, 수업 전 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물카 탐지기를 추가로 갖추고 2주 단위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안전대책 강화를 약속했다.

학교 측은 남학생을 받기로 한 국제학부는 현재까지 접수상황으로 미뤄, 여학생이 90% 이상이며 출입국 관련 서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실제 입학

하는 남학생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성인학습자 역시 수시 지원자 60명 중 10명 안팎으로 남학생은 '소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남학생들이 기숙사와 떨어진 다른 건물을 이용했으면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 측은 "성인 학습자 전형 학생들에게 학생증을 발급해 교내 출입하는 남학생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신했다.

논의 끝에 학생들은 지난 13일부터 학교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 중앙도서관 계단에 쌓은 학교 점퍼와 전공서적을 수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지인 살해·피해자 아내 납치 40대에 사형 구형

지인을 살해하고 달아나면서 신고를 막으려고 피해자 아내까지 납치한 40대에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표지청은 28일 광주지법 목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밤 10시께 목포시 한 주택 2층에서 B(4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달아나는 과정에서 B씨의 아내 C씨까지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같은 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술을 마신 후 2층 창문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 안에는 C씨와 딸(5)이 함께 있었는데 A씨는 범행

직후 신고가 두려워 아이는 집에 두고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달아났다. 집 안에 있던 현금 30여만원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05년 2월 6일 새벽 3시께 김씨의 한 주택에서 30대 지인 D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교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재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계열	모집 단 위		모집 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부 (음악학 전공/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신학과는 군중사관보충(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 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3소로 36